

전남농기원, 2월 농업인 교육과정 교육생 260명 모집



▲노지과수(복숭아)정지·전정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전남농기원 제공)

6차 농산업의 이해 등 11개 교육과정 운영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2월에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26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노지과수 문제해결(기초·심화) ▲6차 농산업의 이해 ▲1인 미디어 제작 및 활용(1기·2기) 등 총 11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작목별·분야별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노지과수 문제해결 과정은 기초와 심화로 나뉘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기초과정은 2월 4일부터

6일까지, 심화과정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품목별로 하루씩 운영된다. 도내 노지과수 재배농가와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동계 과수 관리 요령을 비롯해 정지·전정 실습, 병해충 관리, 수확 후 관리 방법, 저장·유통 기술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습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도내 노지과수 재배농가와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동계 과수 관리, 정지·전정 실습, 병해충 관리, 수확 후 관리 방법과 저장·유통 기술 등을 교육한다.

6차 농산업의 이해 과정은 2월 10일부터 2일간 운영된다. 농업·제조·서비스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의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 산물과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전략을 소개한다.

특히 현장 체험 교육을 병행해 농업인의 융복합 농업 이해도를 높이고, 농촌 소득 다각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인 미디어 제작 및 활용 과정은 1기(2월 10~13일)와 2기(2월 24~27일)로 나눠 각 4일간 운영된다.

농업인의 농산물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유튜브 채널 개설, 콘텐츠 기획, 영상 촬영·편집 실습, 수익 창출 방법 등을 교육하며, 30시간 이상 정보화 교육을 이

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봉 사양 관리 과정은 2월 25일 하루 동안 도내 한봉 사육 농업인과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토종별 양봉기술, 질병관리, 판매 마케팅 전략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농업기계 업무담당자 현장실무 과정은 2월 26일부터 이틀간 시군 농업기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농업기계 기초이론과 함께 기종별 점검·정비 실습, 장기보관 관리 요령 등을 교육해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과정별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세부 일정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전남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2월부터 시작되는 교육과정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봄 파종 식용·사료용 맥류 품종 종자 신청 시작

투자·홍보 연계 프로그램으로 기업 성장 촉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부터 식용 맥류(겉보리, 맥주보리)와 사료 맥류(청보리, 호밀, 트리티케일, 겉귀리) 보급종 종자를 원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녹비용이나 풋베기 사료용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식용 맥류의 가을 파종 시기를 놓쳐 봄 파종이 필요한 농가가 대상이다.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녹아 파종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바로 파종할 수 있으며, 봄 파종은 가을 파종에 비해 수확량이 적은 만큼 파종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종자 신청은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개인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종자를 공급한다.

누리집 메뉴에서 신청자 및 배송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종자를 선택해 신청하면, 입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입금이 확인된 뒤 종자가 배송된다. 이때 입금자명과 신청자명은 같아야 한다.

신청 가능 품종과 수량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나 취소 상황에 따라 공급 가능 수량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식용 맥류 가운데 겉보리 ‘헤미’는 효소 활성



▲한국농기원 제공(겉보리, 헤미)

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맥류작물과에서 육성한 국내 품종이다.

식용 맥류는 겉보리 ‘헤미’, ‘씩이랑’, ‘씩누리’, 맥주보리 ‘광맥’, ‘호단’ 등 5품종이며, 사료 맥류는 청보리 ‘유진’, 호밀 ‘대곡그린’, 총채밀 ‘조우’, 트리티케일 ‘한영’, 겉귀리 ‘하이스피드’ 등 5품종이다.

보급 종자는 전량 미소독 상태로 배송되며, 포장단위는 20kg이다. 가격은 겉보리·맥주보리·청보리 36,000원, 호밀 45,000원, 트리티케일 40,000원, 겉귀리 42,000원, 총채밀 25,000원이다. 배송비는 300kg 이상 주문 시 무료이나, 300kg 미만 주문 시, 20kg당 7,000원의 배송비를 선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식용 맥류 가운데 겉보리 ‘헤미’는 효소 활성

이 높아 엿기름이나 보리차 가공용으로 적합한 품종이다. ‘씩이랑’은 병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아 새싹이나 보리차용으로 활용도가 높으며, ‘씩누리’는 흰가루병에 강하고 새싹 및 엿기름용으로 적합하다.

맥주보리 ‘광맥’은 알이 크고 수량성이 우수하며 쓰러짐에 강한 품종이고, ‘호단’은 키가 작아 쓰러짐에 강하고 맥아 품질이 우수한 특성을 지녔다.

사료 맥류는 청보리, 호밀, 트리티케일, 겉귀리, 총채밀 등 각 작물마다 1종을 보급한다.

사료 맥류 가운데 청보리 ‘유진’은 가축이 잘 먹는 품종으로 조사료 품질이 우수해 조사료 및 녹비용으로 적합하다. 호밀 ‘대곡그린’은 추위에 강해 조사료와 녹비 재배에 알맞으며, 트리티케일 ‘한영’은 추위와 쓰러짐에 강하고 조사료 생산량이 많은 품종으로, 가을 파종을 권장하되 봄 파종 때에는 파종 시기가 빠른수록 생산량이 높다. 겉귀리 ‘하이스피드’는 전국에서 봄이나 여름에 파종할 수 있고 조사료 품질이 매우 우수하며, 총채밀 ‘조우’는 이삭이 길고 쓰러짐에 강해 봄 파종에 적합한 조사료용 품종이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etimes.com

농진청, 아산 딸기 재배 농가 한파 대응 시설 점검

한파 대응 난방·보온 등 시설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26일, 충남 아산의 딸기 재배 농가를 찾아 한파 대응 시설과

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김 원장은 “최근과 같은 한파기에는 난방 부담이 늘고, 생육 불균형,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진다.”라며 “영농 경력 이 짧은 청년농업인도 작물 생육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의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제어 시스템과 보온커튼, 난방시설 등 주요 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살피고,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리 요령과 주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김 원장은 농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난방비 부담, 한파 시 시설 운영 요령 등 영농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주의 깊게 들으며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김대현 원장은 “기후변화로 한파와 이상저온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농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대응 전략”이라며, “스마트 환경제어와 재배 관리 기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이 26일 충남 아산시 염치읍 딸기 재배 농가를 찾아 시설관리 현황을 둘러보며 한파 피해 예방 관리 요령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제공=농촌진흥청)

김대경 기자
press@nongupetimes.com

농협중앙회, 청년농업인과 함께 미래농업을 묻다

트렌드·AI·유통 구조 등 체험형 교육 운영

농협중앙회는 지난 22일 경기 안성시 창업농지원센터에서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청년농업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충북 음성 금왕농협(조합장 이명섭) 소속 청년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미래 조합원 육성과 농협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고 청년농업인이 지역농협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3일까지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2026년 후계농육성을 위한 정책 및 주요 사업 방향 ▲농업·농촌의 현실 진단과 미래 농업 트렌드 이해 ▲농업의 AI 활용 사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안성 농식품 물류센터 견학을 통해 농산물 유통 구조를 직접 살펴보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명섭 조합장은 “이번 교육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농협과 농업의 역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

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 창업농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미래 농업의 핵심 성장동력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2월 초부터 ‘2026년 청년농부사관학교 14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협 창업농지원센터 교육지원팀(세부사항 홈페이지 참조)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태영 기자
ktye0712@daum.net

www.kfeedia.or.kr

| 한국단미사료협회

- 정부위탁업무
- 회원사 지원사업
- 교육훈련사업

| 한국단미사료협회 사료연구소

- 사료품질 및 안전성 검사
- 세계적 분석 검정능력 강화 및 확보
- 사료분석방법 개발 등 분석교육 지원사업

TOGETHER WE CAN!

안전한 대한민국 사료 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단미사료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단미사료협회

KFIA 한국단미사료협회
Korea Feed Ingredients Association

본 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 KFIA 회관
사료연구소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미래산단4로 95

Tel. 02)585-2223
Tel. 044)863-5790